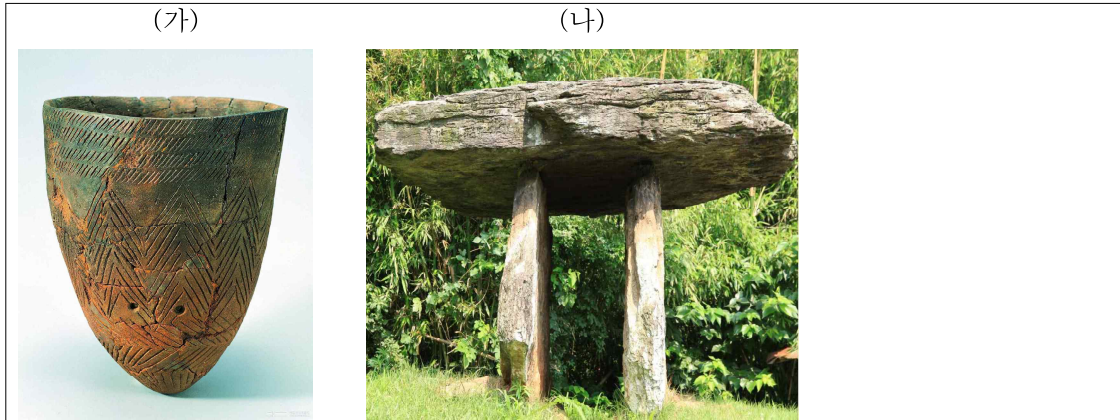


## 2019년 계리직 9급 한국사

1. (가), (나)의 유물·유적을 사용하였던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보기>

- ㄱ. (가) - 농경과 목축이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졌다.
- ㄴ. (가) - 주먹도끼, 스페찌르개, 뚜르개, 찌개 등의 석기를 사용하였다.
- ㄷ. (나) - 한반도에서는 주로 강가나 바닷가에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
- ㄹ. (나) - 전문 장인이 출현하고 사유 재산 제도와 계급이 나타나게 되었다.

- ① ㄱ, ㄴ
- ③ ㄷ, ㄹ

- ② ㄴ, ㄷ
- ④ ㄱ, ㄹ

정답 : ④

(가)는 신석기 시대에 사용한 빗살무늬 토기, (나)는 청동기 시대부터 군장 등 지배자의 무덤으로 제작된 고인돌이다.

ㄱ. 신석기 시대에는 원시 농경이 시작되어 조, 피, 수수 등이 재배되었으며, 정착 생활이 시작됨에 따라 가축을 키우기도 하여 경제 생활에서 농경과 목축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게 되었다. ㄷ. 청동기 제작과 관련하여 거푸집이 전국의 여러 유적에서 발견되는 점을 통해, 청동 제품을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사실과 전문적인 장인이 출현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청동기 시대부터 사유 재산에 따른 빈부 격차와 계급의 분화가 촉진되었다.

ㄴ. 구석기 시대에는 주로 주먹도끼, 찌개, 찌르개, 팔매돌 등을 가지고 사냥을 하였고 굽개, 밀개 등을 조리 도구로 사용하였다. ㄹ.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강가나 바닷가에 움집을 짓고 생활하였다. 청동기 시대에는 주로 구릉 지대에 거주하면서 농경 생활을 하였고, 마을 주변에 목책과 환호(해자) 등의 방어 시설을 만들었다.

2. (가)왕과 (나)국가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경자(庚子)년에 (가)왕이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 (나)을/를 구원하게 하였다. 관군이 이르자 왜적이 물러가므로, 뒤를 급히 추격하여 임나나라의 종발성(從拔城)에 이르렀다. 성이 곧 항복하자 병력을 두어 지키게 하였다.

<보기>

- ㄱ. (가)왕의 왕호를 새긴 유물이 신라 왕도에서 출토되었다.
- ㄴ. (가)왕은 아단성 등 백제의 58성 700여 촌을 공략하였다.
- ㄷ. (나)국가는 포상(浦上) 8국의 공격을 받은 가야를 구원하였다.
- ㄹ. (나)국가는 왜(倭)의 아스카[飛鳥] 문화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ㄷ, ㄹ

정답 : ③

제시된 사료는 광개토 대왕의 왜구 격퇴에 대한 내용으로, (가)는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 (나)는 신라이다.

ㄱ. 신라 돌무지덧널무덤인 호우총에서 출토된 청동 호우 밑바닥에 “을묘년국강상광개토지호태왕호우십”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이를 통해 내물왕 이후 신라에 대한 고구려의 영향력이 컸음을 알 수 있다. ㄴ. 고구려 광개토 대왕은 즉위 6년에 수군으로 백제를 공격하여 백제왕성(몽촌토성)을 공격하고 58성 700촌을 취하는 대승을 거두었다. ㄷ. 『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나해왕 14년(209)에 포상 8국이 가야를 침략하려고 하자 가야 왕자가 신라에 와서 구원을 청하였고, 이에 신라군이 구원하러 가서 8국 장군을 죽이고 6천 명을 잡아 돌아왔으며, 그 3년 후에도 또 한 차례의 침공을 물리쳤다고 한다.

ㄹ. 일본의 아스카 문화는 삼국의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삼국 중에서도 백제 문화가 일본에 큰 영향을 주었다.

3. (가), (나)의 사실로 알 수 있는 나라의 풍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국왕이 죽으면 옥갑(玉匣)을 사용하여 장례를 치렀다.
- (나) 성책(城柵)을 둥글게 만들었는데 그 모양이 마치 감옥과 비슷하였다.

- 『삼국지』 -

- ① 머리 폭이 좁으며 남녀 모두 몸에 문신(文身)을 하였다.
- ② 전쟁을 할 경우에는 소[牛]를 잡아 그 발굽을 살펴 길흉을 점쳤다.
- ③ 10월에 나라 동쪽의 수혈(隧穴)에서 수신(隧神)을 모셔다 제사를 지냈다.
- ④ 웅기술에 쌀을 담아서 목곽 무덤의 한 편에 매달아 두는 매장 풍습이 있었다.

정답 : ②

국왕의 장례 시 옥갑을 사용하고, 둥근 성책을 만든 국가는 ‘부여’이다.

② 부여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제천 의식을 행하고, 소를 죽여 그 곶으로 길흉을 점치는 우제점법을 행하기도 하였다.

① 아이가 태어나면 돌로 머리를 눌러 납작하게 만드는 편두(編頭)의 풍습과 문신 풍습은 삼한에서 나타난다. ③ 10월에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치르고, 왕과 신하들이 국동대혈에 모여 제사를 지낸 나라는 고구려이다. ④ 옥저는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가매장하였다가 나중에 그 뼈를 추려서 가족 공동 무덤인 커다란 목곽에 안치하였으며, 목곽 입구에는 죽은 자의 양식으로 쌀을 담은 항아리를 메달아 놓기도 하였다.

4. (가)와 (나)의 사건 사이에 신라에서 있었던 일로 옳지 않은 것은?

- |                                                               |
|---------------------------------------------------------------|
| (가) 위두(衛頭)를 전진(前秦)에 사신으로 보냈다.<br>(나) 아시촌(阿尸村)에 소경(小京)을 설치하였다. |
|---------------------------------------------------------------|

- ① 실직국과 압독국을 정복하였다.  
② 복호(卜好)를 고구려에 볼모로 보냈다.  
③ 나을(奈乙)에 신궁(神宮)을 설치하였다.  
④ 상복법(喪服法)을 제정해 반포, 시행하였다.

정답 : ①

(가)는 4세기 내물왕 때로, 내물왕 때는 고구려를 통해 전진과 수교하여 381년 위두를 보내 전진에 토산물을 바쳤다. (나)는 6세기 지증왕 때로, 지증왕은 지방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514년 아시촌 소경을 설치하였다.

- ① 『삼국사기』에 따르면 파사왕 때 압독국이 실직국의 왕과 함께 사로국에 항복하였다(102).  
② 실성마립간 11년(412)에는 고구려에 미사흔의 형 복호(卜好)를 볼모로 보냈다. ③ 5세기 소지 마립간 때에는 시조가 탄생한 나을(奈乙)에 신궁(神宮)을 설치하였다(487). ④ 지증왕 때인 504년에는 상복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반포하고 시행하였다.

5. 다음 글을 저술한 승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
| 펼쳐 열어도 번잡하지 아니하고 종합하여도 좁지 아니하다. 주장하여도 얻음이 없고 논파하여도 잃음이 없다. 이것이야말로 마명(馬鳴) 보살의 오묘한 기술이니, 기신론(起信論)의 종체(宗體)가 그러하다. 종래에 이를 해석한 사람들 중에는 그 종체를 갖추어 밝힌 이가 적었다. 이는 각기 익혀 온 것을 지켜 그 문구(文句)에 구애되고, 마음을 비워서 뜻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
|-----------------------------------------------------------------------------------------------------------------------------------------------------------------------------------------------------------------|

- ① 대국통이 되어 신라 불교를 총관하였다.  
② 현장(玄奘)에게 신유식학(新唯識學)을 수학하였다.

- ③ 여러 불교 경전의 사상을 하나의 원리로 회통시키려 하였다.
- ④ 제자 양성과 함께 교세 확장에 힘써 화엄 10찰을 조성하였다.

정답 : ③

제시된 사료는 원효에 대한 것으로, 원효는 『기신론』의 의미를 높게 평가하여 분파 의식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③ 원효는 신라 교학의 연구 기반 위에서 『기신론』의 학설을 기반으로 당대의 사상적 과제이던 중관과 유식을 회통할 수 있는 이론 체계를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파 의식의 극복 이론을 전개하였다.

① 자장은 승려들의 엄격한 금욕 생활과 의식을 강조한 계율종을 개창하고 대국통이 되어 신라 불교를 총괄하였다. ② 원측에 대한 내용이다. 원측은 당나라 현장의 제자로서 유식 불교를 깨닫고 당에 있는 서명사에서 자기 학설을 강의하였다. ④ 의상은 화엄종을 전하기 위해 부석사 등 화엄 10찰을 설립하였다.

6. (가)왕의 재위 시기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공주는 우리 대흥보력효감금륜성법대왕(大興寶曆孝感金輪聖法大王)의 둘째 딸이다. 고왕과 무왕, 그리고 공주의 아버지 (가)왕은 왕도를 일으키고 무공을 크게 떨쳤다고 말할 수 있다. 만일 이들이 때를 맞추어 정사를 처리하면 그 밝기가 일월이 내려 비치는 것과 같고, 기강을 세워 정권을 주도하면 그 어진 것이 천지가 만물을 포용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 ① 신라는 관리 등용을 위해 독서삼품과를 설치하였다.
- ② 일본에서는 엔닌[圓仁]이 구법을 위해 당으로 갔다.
- ③ 발해는 당(唐)으로부터 ‘발해국왕’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 ④ 당에서는 안록산과 사사명(史思明)의 난(亂)이 일어났다.

정답 : ②

제시된 사료는 정혜공주 묘지문으로, 제시된 (가) 왕은 발해 문왕(재위 737~793)이다.

② 일본 승려 엔닌은 당나라로 건너가 밀교를 받아들인 구법승으로, 838년에 당에 건너갔으며 장보고가 세운 적산 법화원의 도움으로 846년에 귀국하였다.

① 관리들의 독서 능력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 채용하는 독서삼품과의 실시는 원성왕 대인 788년의 사실이다. ③ 대조영 대 ‘발해군왕’으로 책봉을 받은 발해가 신라와 대등하게 인정받았던 시기는 당나라가 안사의 난 등으로 발해의 협조가 필요하던 시기인 발해 문왕 대인 762년이였다. 이를 통해 발해는 당으로부터 ‘발해군’이 아닌 ‘발해국’으로 인정받았으며 왕에 대한 책봉 작위가 ‘발해군왕’이 아닌 ‘발해국왕’으로 승격되었다. ④ 안록산·사사명의 난은 755년에서 763년까지 전개되었으며, 안록산·사사명의 난으로 발해는 문왕 때인 756년에 중경 현덕부에서 상경 용천부로 수도를 옮겼다.

7.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비로소 직관·산관 각 품(品)의 (가)을/를 제정하였는데 관품의 높고 낮은 것은 논하지 않고 다만 인품(人品)만 가지고 토지의 등급을 결정하였다. 자삼(紫衫) 이상은 18품(品)으로 나눈다.

- 『고려사』 -

- ① 문종 때에 제정된 토지 제도로 5품 이상의 관리에게 지급하였으며 자손에게 세습도 허용하였다.
- ② 문종 때에 산직은 누락하고 철저하게 실직을 대상으로 하여 지급하였으며, 무반의 대우가 이전보다 좋아졌다.
- ③ 광종 때에 제정된 4색 공복 제도를 참작하여 직관과 산관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관직과 관계(官階)도 지급 기준이 되었다.
- ④ 성종 때에 마련된 관료 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분급 기준이 단일화되었으며, 인품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직 중심으로 지급되었다.

정답 : ③

제시된 (가)는 직·산관에 관품이 아닌 인품을 기준으로 전시를 분급한 경종 때의 시정 전시과(976)이다.

- ③ 시정 전시과는 광종 때 제정된 자삼·단삼·비삼·녹삼의 4색 공복 제도를 기준으로 삼았으며, 자삼을 제외한 단삼·비삼·녹삼은 다시 문반·무반·잡업의 세층으로 나누어 지급하였다.
- ① 문종 때 제도적으로 완비된 공음전에 대한 내용으로, 5품 이상의 고위 관리들은 공음전을 지급받아 대대로 세습할 수 있었다. ② 문종 때의 경정 전시과에서는 산직을 제외한 실직에게만 전시를 지급하였으며, 무신의 직역이 고역(苦役)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무신에 대한 차별 대우가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 ④ 목종 때의 개정 전시과에서는 인품을 배제하고 관품만을 고려하였으며, 산직도 전시과 지급 대상에 포함되기는 하였으나 양자가 동등한 대우를 받지는 않았다. 즉, 산직은 같은 관품의 실직에 비해 대체로 1~4단계 낮은 과등을 받게 되었으며, 이렇게 볼 때 실직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8. 다음 사실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ㄱ. 이몽학이 농민과 자신이 조직한 회원들을 이끌고 홍산에서 난을 일으켰다.  
 ㄴ. 권율이 이끄는 관군과 백성은 합심하여 행주산성에서 왜군을 물리쳤다.  
 ㄷ. 조선 정부는 전란 중에 새로운 군대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훈련도감을 설치하였다.  
 ㄹ. 왜군이 조선 수군을 습격하여 통제사 원균(元均), 전라 수사 이억기(李億祺), 충청 수사 최호(崔湖) 등이 죽었다.

- ① ㄱ-ㄴ-ㄷ-ㄹ
- ② ㄱ-ㄴ-ㄹ-ㄷ
- ③ ㄴ-ㄱ-ㄷ-ㄹ
- ④ ㄴ-ㄷ-ㄱ-ㄹ

정답 : ④

ㄴ. 1593년 2월 전라도 관찰사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1만 명에 못 미치는 병사로 3만 여명의 왜군을 대파하였다. ㄷ. 1593년 8월 유성룡의 건의로 훈련도감을 임시로 설치하였으며, 10월에 선조가 한양으로 돌아온 뒤 정식 설치하였다. ㄱ. 1996년 임진왜란 중 일본이 재침을 막기 위해 산성을 수리하고 계속되는 흉년으로 백성들의 불만이 커지자, 왕실 서얼 출신인 이몽학이 이들을 선동하여 충청도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ㄹ. 정유재란 때인 1597년 7월 왜군의 급습으로 경상도 고성에서 통제사 원균, 전라 수사 이억기, 충청수사 최호 등과 함께 전사하였다(칠천량 해전).

9. 밑줄 친 (가)와 (나) 사이 시기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심하다. (가) 달단이 환란을 일으킴이여! 그 잔인하고 흉포한 성품은 이미 말로 다할 수 없고, 심지어 어리석음은 또한 짐승보다 심하니, 어찌 천하에서 공경하는 바를 알겠으며, 이른바 불법(佛法)이란 것이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그들이 경유하는 곳마다 불상과 범서를 마구 불태워 버렸습니다. ... (중략) ... 옛날 현종 2년에 (나) 거란주(契丹主)가 크게 군사를 일으켜 와서 정벌하자 현종은 남쪽으로 피난하고, 거란 군사는 송악성에 주둔하고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이에 현종은 여러 신하들과 함께 더할 수 없는 큰 서원을 발하여 『대장경』 판본을 판각했습니다. 그러자 거란 군사가 스스로 물러갔습니다. 그렇다면 『대장경』도 한가지고, 전후 판각한 것도 한가지고, 군신이 함께 서원한 것도 한가지인데, 어찌 그때에만 거란 군사가 스스로 물러가고 지금의 달단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만 제불다천(諸佛多天)이 어느 정도 보살피 주느냐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 이규보, 『동국이상국집』 -

- ① 개경에서 초조대장경판이 조성되었다.
- ② 개경의 교장도감에서 『교장』이 간행되었다.
- ③ 해인사에 장경판전을 짓고 팔만대장경을 소장하였다.
- ④ 대구 부인사에 소장된 초조대장경판이 화재로 소실되었다.

정답 : ③

제시된 사료는 이규보가 몽골군을 물리치기 위해 대장경을 판각하면서 지은 글로, (가)는 몽골의 침입, (나)는 현종 때 거란의 2차 침입에 대한 내용이다.

③ 몽골의 침입으로 초조 대장경이 불타자 팔만대장경을 다시 조판하였으며, 조선 전기인 15세기에 해인사 장경판전을 짓고 팔만대장경을 보관하였다.

①, ④ 고려 현종 때 거란의 침입을 격퇴하기 위해 초조대장경을 조판하기 시작하였으며, 조판이 완성된 후에는 대구 부인사에 보관하였으나 몽골의 2차 침입에 의해 대부분 소실되었다. ② 선종 3년(1086)에 설치된 교장도감을 통해 의천은 선종 8년(1091)부터 숙종 6년(1101)에 『교장』을 편찬하였다.

10. (가)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범례는 한결같이 『자치통감』에 의거하였고, 『강목』의 필삭한 취지에 따라 번다하고 쓸모없는 것은 삭제해서 요령만 남겨 두려고 힘썼습니다. 삼국이 함께 대치하였을 때는 삼국기(三國紀)라 칭하였고, 신라가 통합하였을 때는 신라기(新羅紀)라 칭하였으며, 고려 시대는 고려기(高麗紀)라 칭하였고, 삼한 이상은 외기(外紀)라 칭하였습니다.

- 『(가)』 서문 -

- ① 단군으로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편년체(編年體)로 기술한 역사서이다.
- ② 신화와 전설을 포함하여 우리 역사를 신이사관(神異史觀)으로 서술하였다.
- ③ 단군 조선에서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영사체(詠史體) 형식으로 정리한 책이다.
- ④ 강목법(綱目法)의 입장에서 재정리하여 기전체(紀傳體)의 형식으로 서술하였다.

정답 : ①

제시된 (가)는 『동국통감』으로, 『동국통감』은 외기·삼국기·신라기·고려기로 구성되었다.

- ① 조선 성종 때 서거정, 이극돈 등에 의해 편찬된 『동국통감』은 고조선부터 고려에 걸친 역사를 서술한 편년체 역사서이다.
- ② 신이 사관으로 저술된 대표적 역사서로는 이규보의 『동명왕편』, 일연의 『삼국유사』 등이 있다.
- ③ 이승휴의 『제왕운기』는 중국과 우리 역사를 오연 칠언으로 노래한 영사시(詠史詩)로서, 단군 조선에서부터 이승휴가 살던 당대의 역사를 서술하였다.
- ④ 강목법을 가미한 기전체의 역사서로는 홍여하의 『휘찬여사』 등이 있다.

11. 토지 제도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서 왕에게 글을 올려 (가)을/를 제정할 것을 요청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문종 때에 정한 바에 의하여 경기 주군(京畿州郡)으로 결정된 고을들을 좌우도(左右道)로 나누어 설치한다. 1품으로부터 9품과 산직(散職)에 이르기까지 18과(科)로 나누었다.

- 『고려사』 -

<보기>

- ㄱ. 전주(田主)는 전객(佃客)에게 전조(田租)로 수확량의 1/10을 징수하였다.
- ㄴ. 양반 관료층의 경제적 보장을 위해 현임이나 퇴임을 막론하고 토지를 지급하였다.
- ㄷ. 토지를 받았던 관리가 죽었을 경우, 수신전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세습이 가능하였다.
- ㄹ. 수조권자의 직접적인 전조(田租)의 수취를 봉쇄하고 납조자(納租者)가 전조를 관리에게 납부하였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ㄷ, ㄹ

정답 : ③

제시된 (가)는 18과로 나누어 경기도 지역에 한해 과전을 지급한 과전법이다.

ㄱ. 과전법에서는 토지 소유자인 전객이 수조권자인 전주에게 생산량의 1/10을 납부하였다.

ㄴ, ㄷ. 과전법에서는 전·현직 관리 모두에게 과전을 지급하였으며, 관리가 사망했을 경우 관리의 가족에게 수신전과 휴양전을 지급하여 세습이 가능하였다.

ㄹ. 과전법 체제하에서는 수조액을 정하는 답험은 수조권을 가진 관원이 직접 시행하도록 하였고, 따라서 과전에서의 납입량은 보통 일반적인 토지보다 무거운 편이었다. 또한, 수조권을 지닌 자들이 온갖 부정 비리를 저지를 위험이 많아 그에 따라 농민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지니고 있었다.

## 12.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은/는 학교가 달로 쇠하자 이를 근심하여 양부(兩府)와 의론하기를, “재상의 직무는 인재를 교육하는 것보다 먼저 함이 없거늘 지금 양현고가 고갈되어 선비를 기를 것이 없습니다. 청컨대 6품 이상은 각각 은 1근을 내게 하고 7품 이하는 포를 차등 있게 내도록 하여 이를 양현고에 돌려 본전은 두고 이자만 취하여 섬학전으로 삼아야 합니다.” 라고 하였다. 양부가 이를 좇아 아뢰자, 왕이 내고(內庫)의 전곡을 내어 도왔다. … (중략) … 만년에는 항상 회암 선생의 초상을 걸고 경모(景慕)하였다.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신뢰의 이름! - 『고려사』 -

① 송악산 아래 자하동에서 학당을 마련하여 9재로 나누고 각각 전문 강좌를 개설했으며 해동공자로 칭송받았다.

② 『주자가례』를 도입하여 집에 가묘를 세워 조상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냈으며 동방이학의 비조로 불렸다.

③ 원의 수도 만권당에서 중국의 문인들과 교류하면서 성리학에 대한 이해를 하였으며 『익재집』, 『역옹패설』을 저술하였다.

④ 원에서 공자 및 제자 70인의 초상을 그려오게 하고 궁궐 안의 학문 기관에서 생도들에게 경사(經史)를 가르치게 하여 성리학을 널리 전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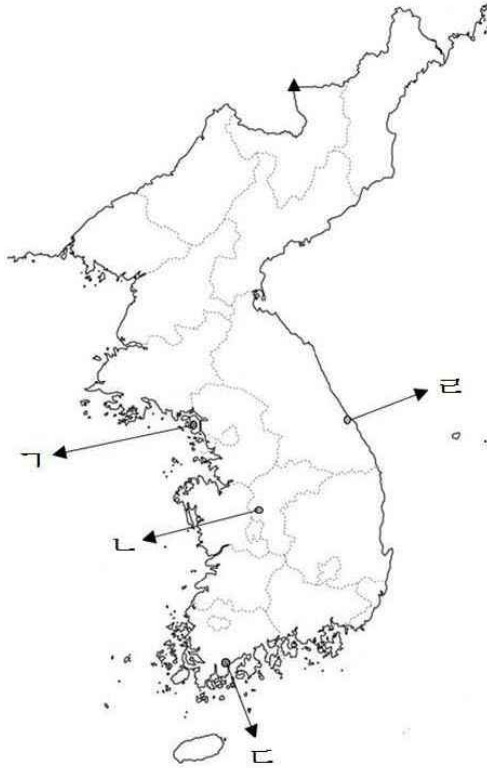
정답 : ④

(가)는 양현고의 부실을 보충하기 위해 섬학전 설치를 건의한 ‘안향’이다.

④ 안향은 김문정을 시켜 공자 및 제자의 초상과 문묘의 제기, 악기 및 육경 등을 구해오게 하였고, 유교 교육의 진흥을 위해 『주자전서』를 직접 베껴오기도 하였다.

① 최충은 벼슬에서 물러난 후 학교를 개설하였는데 학생들이 운집하자 송악산 기슭 자하동에 학사를 마련하고 학당을 9재로 나누어 수용하였다. 최충은 죽은 뒤 ‘문헌’이라는 시호를 받았으며, 후세 사람들에게 ‘해동공자’로 불렸다. ② 정몽주는 주자 성리학에 조예가 깊어 가묘를 세우길 권장하였고, 『주자가례』에 따라 삼년상을 실천하여 스승 이색으로부터 ‘동방이학의 비조’라는 칭찬을 받기도 하였다. ③ 이제현은 원의 만권당에서 중국 문인들과 교류하였으며, 『익재집』, 『역옹패설』 등의 저술을 남겼다.

13. ㄱ~르 지역 일대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ㄱ. 대장도감을 설치하고 제조대장경판 조성을 시작하였다.
- ㄴ. 백운경한화상이 편술한 『직지심체요절』을 간행하였다.
- ㄷ. 도의선사가 선종 9산 선문 중 가지산파를 개창하였다.
- ㄹ. 불교 개혁을 위해 백련사에서 결사 운동을 전개하였다.

- ①  $\neg$   
②  $\neg, \perp$   
③  $\neg, \perp, \sqsubset$   
④  $\neg, \perp, \sqsubset, \sqcup$

정답 : ③

ㄱ은 강화도, ㄴ은 청주, ㄷ은 장흥, ㄹ은 삼척이다.

7. 1236년 국왕을 비롯하여 문무관료가 부처의 힘을 빌어 몽골을 물리칠 목적으로 대장경을 다시 조판하기 위해 강화도에 대장도감을 설치하였다. ㄴ. 고려 우왕 3년(1377)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된 『직지심체요절』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이며, 현재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 보관되고 있다. ㄷ. 제정은 전라남도 장흥의 가지산에 가지산파를 세워 크게 선종을 떨쳤다.

ㄷ. 천태종 승려 요세는 전남 강진의 만덕산에 백련사라는 사찰을 세우고 법화 신앙에 중점을 두고 참회를 강조하면서 백련결사 운동을 일으켰다.

14. (가), (나)의 주장을 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여(閼)에는 여장(閼長)을 둔다. 무릇 1여의 토지는 1여의 사람들로 하여금 공동으로 경작하게 하고, 내 땅 네 땅의 구분 없이 오직 여장의 명령만을 따르게 한다.  
(나) 국가는 마땅히 한 집의 재산을 헤아려서 토지 몇 부(負)를 한 집의 영업전으로 삼아 당(唐)의 제도처럼 한다. 땅이 많은 자라도 빼앗아 줄이지 않고 모자라는 자에게도 더 주지 않는다.

- ① (가) - 『우서』를 저술하여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개혁하고자 하였다.
- ② (가) - 우물 정(井)자 모양으로 토지를 골고루 나누어 주자는 정전제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 ③ (나) - 자신의 저술에서 실옹(實翁)과 허자(虛子)의 대담 형식을 빌려 중국 중심 세계관의 허구성을 강조하였다.
- ④ (나) - 신분에 따라 차등을 두어 토지를 지급하되, 농민들에게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나누어 주는 균전론을 제시하였다.

정답 : ②

(가)는 여전론을 주장한 정약용, (나)는 한전론을 주장한 이익이다.

② 정약용은 토지 제도의 개혁론으로 여전론을 처음에 내세웠다가 후에 정전제를 현실에 맞게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경세유표』의 ‘정천의(井田議)’에서 전국의 토지를 국유화하여 정전을 편성하고, 국가 재정으로 사유 농지를 매입하여 전체 농지의 1/9을 공전으로 만들고 거기에서 산출되는 수확량을 조세로 충당하자고 제안하였다.

① 『우서』는 유수원의 저서이다. ③ 홍대용은 『의산문답』을 통하여 실옹과 허자가 서로 대화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성리학적 고정 관념을 상대주의적 시각으로 비판하고 서양의 과학 사상을 소개하였으며 지전설을 주장하였다. ④ 유형원의 주장으로 신분의 차등을 전제로 한 균전론에 대한 설명이다.

15. (가)전쟁 기간 내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일본의 연합 함대가 인천과 뱌순에서 러시아 군함을 공격하면서 (가)전쟁이 시작되었다. 일본군은 뱌순 요새를 함락시키고 봉천에서 러시아군을 격파하여 북쪽으로 몰아내었다. 일본은 전투에서 연이어 승리하였지만 국력을 소진하였으며, 러시아는 피의 일요일 사건으로 내정이 불안한 상태였다. 마침 동아시아에 큰 관심이 있던 미국이 중재에 나서 포츠머스에서 강화 조약이 체결되었다.

- ① 대한 제국 정부는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면서 국외 중립을 선언하였다.
- ② 일본은 독도를 시마네 현에 편입시킬 것을 결정하는 불법적 영토 침탈 행위를 자행하였다.
- ③ 대한 제국 정부는 「재정 및 외교 고문 용빙에 관한 한·일 각서」를 일본의 강요로 체결하였다.
- ④ 일본은 미국과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맺어 미국으로부터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

받았다.

정답 : ①

제시된 (가)는 1904년에 발발한 러·일 전쟁이다.

① 러·일 전쟁의 전운이 감돌자 고종은 1904년 1월 21일 대한 제국의 대외 중립을 선언하였다.

② 일본은 러·일 전쟁 중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1905. 2. 22)를 통하여 자기들의 영토로 불법 편입시켰다. ③ 1904년 2월 러일 전쟁 중 일본은 군대를 서울에 투입하여 무력으로 한·일 의정서를 체결함으로써 한반도를 군사 기지로 확보하였다. 곧이어 일본은 대한 제국의 외교, 재정, 교통 기관, 통신 등을 장악하는 식민지화의 구체적인 시책으로 「대한방침」, 「대한시설강령」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은 한국의 재정 및 외교 정책 쇄신을 위한 외국 고문의 초빙에 대한 협정 체결을 한국 정부에 강요하여 1904년 8월 22일 「고문 용병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했다. ④ 미국의 특사 W. H. 태프트와 일본 총리 가쓰라 다로는 1905년 7월 “미국은 일본의 한국 지배를 승인하며, 일본은 필리핀을 침략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체결하여 양국 서로의 식민 지배를 인정하였다.

16. (가)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신뢰의 이름!

海東韓國史

(가)법

[시행 1949. 6. 21.]

제1장 총칙

제1조 본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농지를 농민에게 적정히 분배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중략) ...

제29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보기>

ㄱ. 소유권의 명의를 분명치 않은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ㄴ. 농가가 아닌 자의 농지와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는 정부가 매수한다.

ㄷ. 분배받은 농지는 분배받은 농가의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가산으로서 상속한다.

ㄹ. 이 법에 있어 농가라 함은 가주 또는 동거 가족이 농경을 주업으로 하여 독립 생계를 영위하는 합법적 사회 단위를 칭한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정답 : ④

(가)는 제시된 법령은 1949년 6월에 제정되어 1950년 3월에 시행된 농지 개혁법이다.

ㄱ. 농지 개혁법 제5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정부는 ‘법령 내지 조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농지’ ‘소유권의 명의를 분명치 않은 농지’를 취득할 수 있었다. ㄴ. 정부의 농지 매

수 규정을 살펴보면 농가 아닌 자의 토지,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 농지개혁법 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 과수원·종묘포·상전 등 다년성 식물 재배 토지를 3정보 이상 자영하는 자의 소유인 다년성 식물 재배 이외의 농지이다.

ㄷ. 농지개혁법 15조에 의하면 분배받은 농지는 분배 받은 농가의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가산으로서 상속한다고 되어 있어, 분배 농지에 대한 농민의 소유권을 국가가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상속까지 허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ㄹ. 농지개혁법에서는 ‘농가’를 가주(家主) 또는 동거 가족이 농경을 주업으로 하여 독립 생계를 영위하는 합법적인 사회 단위를 지칭한다고 명시하였다.

17.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대황제 폐하께서 갑오년 중흥(中興)의 기회를 맞아 자주 독립의 기초를 확정하시고 새로이 경장(更張)하는 정령(政令)을 반포하실 때에 특히 한문과 한글을 같이 사용하여 공사문서(公私文書)를 국한문으로 섞어 쓰라는 칙교(勅敎)를 내리셨다. 모든 관리가 이를 받들어 근래에 관보와 각 부군(府郡)의 훈령, 지령과 각 군(各郡)의 청원서, 보고서가 국한문으로 쓰였다. 이제 본사에서도 신문을 확장하려는 때를 맞아 국한문을 함께 쓰는 것은, 무엇보다도 대황제 폐하의 성칙(聖勅)을 따르기 위해서이며, 또한 옛글과 현재의 글을 함께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기 위함이다.

- 「(가)」 창간사 -

<보기>

ㄱ. 경술국치 이후 강제로 『한성신문』으로 바뀌어 발행되다가 폐간하였다.  
 ㄴ. 천도교 기관지로 창간되었으며 인민의 교육을 강조하고 반민족적 행위 등을 규탄하였다.  
 ㄷ. 1898년 8월 창간한 일간지로 개화 문명의 수용을 통해 근대 사회를 건설하고자 국민 계몽에 주력하였다.  
 ㄹ. 1898년 9월에 창간되어 광무 정권이 표방한 ‘구본신참’의 원칙에 따라 온건하면서도 점진적인 개혁을 제시하였다.

- ① ㄱ, ㄷ  
 ③ ㄴ, ㄷ

- ② ㄱ, ㄹ  
 ④ ㄴ, ㄹ

정답 : ②

제시된 (가)는 『황성신문』이다.

ㄱ. 『황성신문』은 강제 병합 직후인 1910년 8월 30일부터는 통감부의 강요로 신문 이름을 『한성신문』으로 바꾸어 발행되었으나, 9월 14일에 결국 폐간되었다. ㄹ. 『황성신문』은 대한 제국의 기관지 역할을 하여 ‘구본신참’에 따른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ㄴ. 『만세보』는 천도교의 기관지로서 손병희, 오세창이 중심이 되어 1906년에 간행되었다. ㄷ. 1898년에 창간된 『제국신문』은 국민 계몽에 주력하여 순한글로 간행하여 부녀자와 하층민들에게 많이 읽혔다.

18. (가)~(다)에 해당하는 독립운동 단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 (가) 한국 독립당을 조직하고 무장 부대인 한국 독립군을 산하에 두어 북만주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 (나) 중·일 전쟁이 일어나자 조선 민족 혁명당을 중심으로 통합에 찬성하는 단체들에 의하여 결성되었다.
- (다) 1938년 민족 혁명당을 중심으로 조직된 군사 단체이며 일부는 화북으로 이동하고 남은 병력은 한국광복군에 합류하였다.

- |   | (가)  | (나)         | (다)    |
|---|------|-------------|--------|
| ① | 국민부  | 조선 독립 동맹    | 조선 의용군 |
| ② | 혁신의회 | 조선 민족 전선 연맹 | 조선 의용대 |
| ③ | 혁신의회 | 조선 독립 동맹    | 조선 의용군 |
| ④ | 국민부  | 조선 민족 전선 연맹 | 조선 의용대 |

정답 : ②

② 3부 통합 운동이 일어나며 축성회 측은 '혁신의회'를 조직하였으며, 혁신의회는 한국 독립당을 조직하였고 산하 부대로 한국 독립군을 두어 지청천의 지휘 하에 북만주와 간도 일대에서 활약하였다. 1937년 중·일 전쟁이 일어나자 김원봉의 조선 민족 혁명당과 김성숙의 조선 민족 해방 동맹, 유자명의 조선 혁명자 연맹, 재남경 한족회 등 한국 광복 운동 단체 연합회(광복진선)에 참여하지 않은 단체들이 연합하여 난징에서 조선 민족 전선 연맹(1937. 12)이 결성되었다. 1938년 조선 민족 혁명당의 부대로 조선 의용대가 결성되었으며, 무장 투쟁의 방향을 둘러싸고 분열되어 일부는 화북으로 이동하였고, 김원봉이 이끄는 충칭 본대는 한국광복군에 합류하였다.